거창가

[해제]

<거창가(居昌歌)>의 작자는 이재가(李在稼,1783~1865)로 알려져 있다. 창작시기는 1841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장편가사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19세기 전반기의 거창 지방의 가렴주구 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발하고 비판한 현실비판 가사 작품인데, 몇 종의 필사 이본이 전한다. 이것은 이현조본, 김준영본, 류탁일본, 박순호본, 김일근본, 김현구본, 임기중본, 소창본, 연세대 본, 청낭결본, 창악대강본 등이다. 이현조본은 표지와 앞부분 3장 정도, 뒷부분 2장 정도가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이 작품의 입력 대본은 이현조본의 필사본이다. 조규익은 이현조본과 임기중본, 김준영본을 대비하였는데, <거창가(居昌歌)>와 폐장(弊狀)」,「취옹정기(取翁政記)」,「사곡서(四哭序)」와의 관계를 아주 상세하게 밝혔다. 여기서「폐장(弊狀)」은 거창부에서 수령(首領)과 아전(衙前)이 저지르던 민폐를 적어 순찰사에게 올린 글이다. 즉, 사인(私人)인 백성으로서 관공서 또는 그 벼슬아치에게 올린 '대관부문서(對官府文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지은 가사가 바로 <거창가>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이본에 따라 <거창가((居昌歌)> • <거창별곡((居昌別曲)> • <아림별곡(娥林別曲)> • <정읍군민란시여항청요(井邑君民亂時閭巷聽謠)> 등으로 달리 표기 되어 있다. 그러나 김일근에 의해 <거창가>가 일명 <한양가>로 처음 소개된 바 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재가'라는 현수령이 부임한 이래 거창민이 도탄에 빠져 시름한다는 현실의 진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재로 있었던 상황이나 사건들을 낱낱이 고발하여 비판한다. 전체적으로는 이재가가 거창으로 내려온 이후의 거창 내 실정을 시간적 추이에 맞추어 읊고 있으며, 거창 읍내의 각종 폐단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작가가 알고 있는 읍내 사건들을 공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다. 즉, '탐관오리를 응징하는 것이 이 작품의 목적이다'고 할 수 있다.

[원문]

쥬장각 모든학ᄉᆞ 훈퇴지의 박셕일대
셩죠의 일당상과 금부의 판의금은
고요의 남은졍계 죽셜의 법을바다
권옥의 쥬부들은 장셕지의 층평일네
십ᄌᆞ가상 도라드이 죵누가 거그로쇠
셔쵹 동산쳘을 바리바리 시러다가
ᄃᆡ픙게 부러ᄂᆡ이 만팔쳘연 쇠복이라
이십팔슈 삼십삼ᄒᆞᆫ 죠셕으로 ᄀᆡ폐ᄒᆞ니
하우씨 구졍인가 제도도 거록ᄒᆞ다
염졔의 일즁위시 ᄇᆡᆨ물시정 버려ᄂᆞᄃᆡ
도불십유 ᄒᆞ난픙쇽 갈쳔셰계 시졀인가
구리ᄀᆡ 구버보니 실농씨 유업이며
툥교 ᄃᆡ쇼ᄅᆡ 강구의 동요로쇠
인졍젼 놉픈집의 오현금 남픙시을
ᄇᆡᆨ공이 상화ᄒᆞᆫ이 건곤일월 발가쇼라
지악관 픙악쇼ᄅᆡ 궁상각치 오음유을
쇼쇼구쳥 말근곡죠 봉학이 츔을츈다
한강슈 집픈믈의 용마ᄒᆞ도 낫단말가
박셕틔 너머드이 ᄐᆡ학관이 거그로쇠

셩쥰관 장훈집과 명윤당 빗난집의
우리부ᄌᆞ 쥬벽되야 안증ᄉᆞ링 ᄇᆡ양ᄒᆞ고
그남은 칠십이현 삼쳔문도 시위즁의
아동방 졔ᄃᆡ현도 ᄎᆞ려로 승무ᄒᆞᆫ이
장ᄒᆞ고 거록ᄒᆞ다 우리됴션 의관문믈
쇼즁화라 일은말삼 이졔와 아노ᄆᆡ라
ᄐᆡ죠ᄃᆡ왕 셩덕으로 ᄉᆞᄇᆡᆨ연연 나려오며
일츌작 일입식의 함포고복 ᄒᆞ난ᄇᆡᆨ셩
남혼여가 질거옴도 ᄐᆡ평연월 죠흘시고
장ᄒᆞ다 계명구폐 ᄉᆞ경의 드러쇼다
임진왜난 병ᄌᆞ호란 즁간의 씨친근심
헌원씨 영졔로되 치우의 난을당코
탕무의 셩치로셔 졍별이 잇셔시며
그남은 셔졀구토 엇지다 긔록ᄒᆞ리
원슐네라 갑오연이 동지십삼 원슈로다
창오산싁 져문날의 옥연승쳔 ᄒᆞ시거다
여상고비 ᄒᆞ난비회 심산궁곡 일반이라
하날갓탄 ᄃᆡ왕ᄃᆡ비 일월갓탄 ᄌᆞ셩젼하
ᄐᆡ임의 덕이신가 셩인황후 법을바다
슈렴쳥졍 ᄒᆞ신후로 팔역이 안연ᄒᆞ다
도광삼칠 신츅연의 우리셩상 즉위ᄒᆞᄉᆞ
츈츄방셩 십오셰예 한쇼졔의 쵹명이며
쥬셩왕 어린임군 팔ᄇᆡᆨ연 긔업인이
우리젼ᄒᆞ 어리시되 팔쳔셰나 바ᄅᆡ난이
작연도 풍연이요 금연도 픙연이라
쳔무열픙 음우ᄒᆞ고 히불양파 ᄒᆞ거고나
입아즁민 ᄇᆡᆨ셩드라 어셔가고 밧비가ᄌᆞ
돈화문의 걸인윤음 ᄒᆞᆫ무졔의 죠셔신가
쵸목군싱 질거옴도 이도쏘ᄒᆞᆫ 셩화로쇠
장안쳥누 쇼연드라 셥탄비응 ᄒᆞ련이와
ᄐᆡ평곡 졍양가을 이ᄂᆡ노ᄅᆡ 드러보쇼
어졔쳥츈 오날ᄇᆡᆨ발 넨들안이 모를쇼야
▦ᄒᆞ▦속 우리인싱 후회ᄒᆞᆫ들 어이ᄒᆞ리
장ᄃᆡ예 고운졔집 네쏫죠타 ᄌᆞ랑마라
셔상의 시난히을 뉘라셔 금할쇼야
동히의 흘은믈이 다시오기 어려워라
뒷동산 피난쏫친 명연삼월 피건만은
우리인싱 늘근후의 다시쇼연 어렵쇼다

낙양셩 십이외예 놉고나진 져무덤의
영웅호걸 몃몃치며 졀ᄃᆡ가인 몃몃친요
우락즁분 미ᄇᆡᆨ연의 쇼연힝낙 편시츈을
일어ᄒᆞᆫ ᄐᆡ평셩셰 안이놀고 무엇ᄒᆞ리
ᄀᆡ벽후 나린ᄉᆞ젹 역역키 드러보쇼
요슌우탕 문무쥬공 공밍안증 졍쥬부ᄌᆞ
도덕이 관쳔할ᄉᆞ 만고셩인 일너시되
요망ᄒᆞᆫ 후싱드리 일을말삼 안이로쇠
그남은 고ᄅᆡ영웅 낫낫치 셰아린이
요슌우탕 문무쥬공 공밍궁 ᄉᆞ랑삼고
말이셩 단장삼아 억만셰 비겨셔라
삼쳔시예 시위ᄒᆞ고 육국졔후 죠공할졔
삼신산 멀고먼ᄃᆡ 원ᄒᆞ난이 불ᄉᆞ약을
동남동여 오ᄇᆡᆨ인이 쇼식죠ᄎᆞ 돈졀ᄒᆞ며
ᄉᆞ구평ᄃᆡ 져문날이 여산쳥츙 쇽졀업ᄂᆡ
우산의 지난히난 졔경공의 눈믈이며
분슈의 츄풍곡은 한무졔의 시럼이라
블상타 용방비간 만고츙신 이연만은
츙언즉간 씰ᄃᆡ업셔 쥭엄조 ᄎᆞ목ᄒᆞ다
장ᄒᆞ다 ᄇᆡᆨ이슉졔 쳔츄명졀 일너시되
슈양산 집픈골의 치미곡이 쳐량ᄒᆞ다
강ᄐᆡ공 황셕공과 ᄉᆞ마양졔 쇤빈오긔
젼필승 굉필츄의 용병이 여신ᄒᆞ되
못쳐난이 염나국을 ᄒᆞᆫ번쥭엄 못면ᄒᆞ고
면산의 봄이드이 ᄀᆡ즈쵸의 무덤이며
삼강의 셩닌죠슈 오ᄌᆞ셔의 졍영인가
명나슈 집픈믈의 굴삼여의 츙혼이라
말잘ᄒᆞ난 쇼진장의 쳔ᄒᆞ을 횡힝ᄒᆞ야
육국졔후 다친ᄒᆞ되 염ᄂᆡ왕 못달ᄂᆡ야
두견셩셰 ▦즁의 혼ᄇᆡᆨ죠ᄎᆞ 우러잇고
밍상군 졔명구도 실능군 졀부죠명
젼국시 호걸이되 삼쳔식ᄀᆡᆨ 어ᄃᆡ두고
황산셰우 잡플즁의 일부토 가련ᄒᆞ다

동장ᄃᆡ 셕두상의 영혼이 ᄌᆞ최업고
부츈산 도라드이 엄ᄌᆞ룡 간ᄃᆡ업고
젹벽강 구위보이 쇼ᄌᆞ쳠 어ᄃᆡ간요
젼쳐ᄉᆞ 도연명은 집터만 비여잇다

역발산 최픽왕은 쳔ᄒᆞ장ᄉᆞ 일너시되
시불이 취불혀여 팔쳔병 흣터지고
위미인 숀목ᄌᆞ바 눈물노 ᄒᆞ죽ᄒᆞ고
오강픙낭 슈운즁의 칠십여젼 가쇼롭다
운쥬유악 장ᄌᆞ방과 동남픙 졔갈공명
쳔문지리 즁찰인ᄉᆞ 만고죠화 가져시되
졀통타 ᄒᆞᆫ번쥭엄 죠화로 못면ᄒᆞ고
ᄉᆞ마쳔 ᄒᆞᆫ퇴지와 이틱빅 두ᄌᆞ미난
졔일문장 이연만은 장싱불ᄉᆞ 못ᄒᆞ엿고
독힝쳘이 관운장은 명진쳔ᄒᆞ ᄒᆞ여셔라
거록다 명쵹달죠 쳔츄습습 쑨이로쇠
장판영웅 장익덕은 편비예 쥭단말가
당돌타 오왕숀권 쐬만ᄒᆞᆫ 위왕죠죠
삼분쳔ᄒᆞ 분분즁의 이도쏘ᄒᆞᆫ 영웅이되
왕ᄉᆞ의 장ᄒᆞᆫ픙유 연ᄌᆞ만 나라든다
곽분양 빅ᄌᆞ쳔숀 일시호강 져쑨이라
도쥬의돈 셕슝은 부지즁 읏씀이되
일싱일ᄉᆞ ᄒᆞᆫ졍잇셔 갑시로 못ᄉᆞ닉고
월셔시 위미인과 왕쇼문 양구비난
션쳘연후 쳘연의 졍국지싁 가져씨되
옥틱화룡 고운양ᄌᆞ 진익즁의 뭇쳐잇셔
츄우오동 엽낙시예 상혼육골 우러잇고
팔빅연 핑죠슈와 삼쳔갑ᄌᆞ 동방싁도
피일시 ᄎᆞ일시라 쥭어지면 그만이요
안긔상 졍숑ᄌᆞ난 동히상 신션이되
귀로만 드러잇졔 눈으로 못보와라
쳔지도 ᄀᆡ벽ᄒᆞ고 일월도 희명커든
ᄒᆞ물며 우리인싱 쳔말연 장싱ᄒᆞ랴
츈ᄒᆞ 츄엽낙의 셰월이 덧업난이
이런쳥츈 쇼연드리 안이노든 못ᄒᆞ리라
됴션삼빅 이십팔쥬 간곳마다 틱평이되
엇지타 우리거창 읍운이 블힝ᄒᆞ야
일경이 도탄되고 만민이 구갈ᄒᆞ여
요슌의 셩치로셔 ᄉᆞ흉이 잇셔시며
졔후왕의 명감으로 아ᄃᆡ부 잇단말가
일월이 발건만은 복분의 난죠ᄒᆞ고
양츈의 포덕인들 읍익의 밋칠숀야
이지가 어인겨며 져지가 어인견고

거창이 펴창되고 틔슈가 원슈로쇠
츽방이 취방ᄒᆞ고 진ᄉᆞ가 다ᄉᆞᄒᆞ다
어와셰상 ᄉᆞ신임ᄂᆡ 우리거창 펴단보쇼
직가시나 려온후의 온갓펴단 지여ᄂᆡ되
구즁쳘이 멀고머러 이런민졍 모로시ᄂᆡ
증쳔각 놉픈집의 관픙찰쇽 우리슌상
읍보만 쥰신ᄒᆞ이 문블셰양 안일넌가
이로포슈 만셕을 빅셩이 무삼죄로
너돈 분급ᄒᆞ고 젼셕으로 믈여ᄂᆡ이
슈쳔셕 포음아젼 ᄆᆡ흔ᄀᆡ 안이치고
두승곡 믈이잔코 빅셩만 믈여ᄂᆡ이
ᄃᆡ젼통편 도목즁의 이런법이 잇단말가
이쳔ᄉᆞ빅 방쵀젼이 이도쏘흔 이포여날
졀복의 뭇쳐ᄂᆡ야 민간의 증츌흔이
왕셰가 쇼즁커든 요망한 아젼포음
빅셩의 슈쇄ᄒᆞ이 비단금연 폐단이랴
본읍지경 둘너보이 삼ᄀᆡ합쳔 안의질의
넷고을 가온ᄃᆡ로 ᄆᆡ연졀복 상졍할졔
타읍은 열흔두양 민간의 츌질ᄒᆞ고
거창은 십오육양 열연이 가증흔야
타읍도 목상납의 호죠혀쳐 밧좌ᄒᆞ고
본읍도 목상납의 호죠혀쳥 밧좌흔이
다갓탄 왕민으로 왕셰을 갓치ᄒᆞ며
엇지타 우리고을 두셕양식 가증할고
더구나 원통ᄒᆞ다 빅ᄉᆞ장의 결복이라
그ᄅᆡ예 낙강셩쳔 구산갓치 씌여난ᄃᆡ
졀통타 우리빅셩 지흔짐 못머거라
직결의 회감ᄒᆞ문 묘장쳐분 잇건만은
묘당회감 져직결을 즁간투식 뉘ᄒᆞ난야
가포즁 아궁포난 졔일노된 가포라
삼ᄉᆞ연 나려오며 학졍이 즈심ᄒᆞ다
아궁포 흔당번을 일향의 편침ᄒᆞ여
만으면 일이빅양 져그면 칠팔십양
모야무지 남모르게 츽방으로 드려가이
이가포 흔당번의 몃몃집이 탕산흔야
그남은 허다가포 슈륙군병 더져두고
일이보 노령보며 현무포 졔번포라
명싁다른 져가포을 빅가지로 침츽ᄒᆞ여

김담ᄉᆞ리 박담ᄉᆞ리 큰아기며 ᄌᆞ근아기
어셔가고 밧비가ᄌᆞ 상작쳥의 잡펴단다
젼쵼의 지난ᄀᆡ난 관치보고 ᄉᆞᆫ리치네
뒷집의 우난아가 읍인왓다 우지마라
황구츙졍 셜워마쇼 일신양역 ᄂᆡ인노라
싱민가포 더져두고 ᄇᆡᆨ골증포 무삼일고
황산고쵱 노방강시 그ᄃᆡ신셰 ᄎᆞ목ᄒᆞ다
월낙삼경 집픈밤과 쳔읍우습 실픈밤의
가포탈 네원졍을 뉘라셔 쳥시ᄒᆞ리
쳥산ᄇᆡᆨ슈 우난과부 그ᄃᆡ신셰 쳐량ᄒᆞ다
젼싱이싱 ᄆᆡ진연분 날바리고 어ᄃᆡ간고
엄동셧달 진진밤의 독슉공방 셜운ᄉᆞ졍
남산의지신밧칠 언의가장 가라쥬며
동산의 익근슐을 뉘다리고 권할쇤야
어린ᄌᆞ식 아비블너 어미간장 다녹인다
엽엽피 우난ᄌᆞ식 ᄇᆡ곱파라 셜은ᄉᆡ셜
가장싱각 셔른즁의 쥭근가장 가포라네
흉악ᄒᆞ다 쥬인놈아 과부쇤목 ᄉᆞ어ᄂᆡ야
가포돈 더져두고 ᄎᆡᄉᆞ졀예 못져ᄎᆞᄌᆞ
필필이 ᄊᆞᄂᆡᆫᄇᆡ을 탈취ᄒᆞ여 가단말가
흉악ᄒᆞ고 분ᄒᆞᆫ일을 ᄉᆞᆫ다시 드러보쇼
졍유연 십월달의 젹화면의 변이난네
우거양반 김일광은 현무포가 당ᄒᆞᆫ말가
김일광 나간후의 ᄒᆡ면임장 슈포할ᄉᆡ
양반ᄂᆡ졍 도립ᄒᆞ여 쳥츈분여 ᄉᆞ어ᄂᆡᆫ이
반상명분 즁ᄒᆞᆫ즁의 남여유별 지염커든
광언ᄑᆡ셜 ᄒᆞ감으로 두발분여 ᄒᆞ단말가
장ᄒᆞ다 져부인이 이런욕 당ᄒᆞᆫ후의
안이쥭고 씰ᄃᆡ업셔 쇤목ᄉᆞᆫ코 직ᄉᆞᄒᆞᆫ이
ᄇᆡᆨ일이 무광ᄒᆞ고 쳥산이 욕열이라
ᄇᆡᆨ연히로 삼ᄉᆡᆨ연분 일검ᄒᆞ의 쥭단말가
흉악ᄒᆞ다 임장놈아 너도ᄉᆞᆫᄒᆞᆫ 인유여든
예모졍열 구든마음 네라감이 능묘할가
만경창파 믈을지러 나의분함 시치고져
남산녹쥭 슈를둔들 네죄목을 다할쇤야
열여졍문 고ᄉᆞᄒᆞ고 ᄃᆡᄉᆞ도 못시긴이
두견셩 셰우즁의 혼ᄇᆡᆨ인들 안이울야
금연ᄉᆞ월 본읍우박 그젹원이 안일넌가

학젹도 ᄒᆞ런이와 살히인명 어인일고
한유틱 졍치셔과 젼부퇴 강일상아
너의등은 무삼죄로 장ᄒᆞ의 즉단말가
한달만의 즉은ᄉᆞ롬 보롬만의 즉은빅셩
오륙인이 되야시이 그젹원이 어ᄃᆡ민요
불상ᄒᆞ다 져귀신아 가련ᄒᆞ다 져귀신아
용쳔금 비계들고 일산압폐 젼빈셔셔
아젹져역 ᄀᆡ폐문의 고각셩의 우러쥬이
공산편월 쏘각달과 빅양쳥ᄉᆞ 썰긔즁의
원통타 우난쇼ᄅᆡ ᄌᆡ가신셰 온젼할가
비명의 즉근원졍 염나국의 상쇼ᄒᆞ이
염나왕이 비답ᄒᆞ되 너의졍지 가긍ᄒᆞ다
아직믈너 고ᄃᆡᄒᆞ면 별난엄치 ᄂᆡᄒᆞ리라
야ᄎᆞ나찰 쇠ᄉᆞ실노 뉘분부라 거역ᄒᆞ리
우리명부 십젼즁의 쳘산옥이 졔일즁타
진지죠고 숑진회도 다그고ᄃᆡ 갓쳐시이
예로븟터 탐관오리 쳘산옥을 면할쇼야
작연회곡 상회판의 통문슈 ᄉᆞ슬ᄒᆞ야
이우셕 ᄌᆞ바드려 즉길거죠 시작ᄒᆞ이
그어만임 거동보쇼 쳥싱과틱 질운ᄌᆞ식
악형ᄒᆞ믈 보기시러 졀향치ᄉᆞ 몬져ᄒᆞ이
고금ᄉᆞ젹 나려본들 이련변이 쏘잇실가
폐단업시 치민ᄒᆞ며 회곡상회 거죠할가
무죄빅셩 즉게ᄒᆞ이 ᄀᆡ과쳔션 안이ᄒᆞ고
츈츄슌 감사드례 거힝이 ᄌᆞ록ᄒᆞ다
민간ᄎᆞ일 바다다가 관가ᄉᆞ면 둘너치이
칙ᄉᆞ힝ᄎᆞ 안이여든 빅포장이 무삼일고
거창삼빅 삼십동의 삼십동은 ᄎᆞ일밧고
삼빅동은 쇽바드이 합ᄒᆞᆫ돈이 오륙빅양
츽방의 분식ᄒᆞ고 공방아젼 살찌것다
ᄃᆡ차담과 쇼차담이 나라회감 잇건만은
ᄃᆡ쇼ᄎᆞ담 드린후의 별찬으로 ᄂᆡ아진지
ᄉᆞ돈팔쵼 부당ᄒᆞᆫᄃᆡ ᄂᆡ아진지 무삼일고
오빅이 봉화션의 곽카ᄉᆞ가 어ᄃᆡ미요
싱갓짐치 구ᄒᆞ다가 진지상의 별찬ᄒᆞ이
나믈반찬 ᄒᆞᆫ가지을 오빅이예 구탄말가
우리거창 즁ᄃᆡ읍의 칼지감상 업다ᄒᆞ여
젼쥬감영 치치달나 감상칼지 셔인ᄒᆞ이

안의슈 민치셔가 긔롱으로 일은말이
너의집 친긔졔슈 오빅이예 구할쇼야
닉아진지 ᄒᆞ지말고 닉아방슈 드려보쇼
이ᄉᆞ롬의 힝실보쇼 위쇼온일 ᄯᅩ잇도다
산암당 치치달나 다른귀경 더져두고
노쇼졔승 블너드려 ᄒᆞ믈젹간 몬져ᄒᆞ이
가풍인가 셰풍인가 씨난고지 어ᄃᆡ ᄆᆡ며
외틱인가 친틱인가 가리기도 ᄌᆞ심ᄒᆞ다
고이ᄒᆞ다 네졀풍쇽 관장마당 그러ᄒᆞᆫ야
빅셩의 졀각농우 엇지타 아ᄉᆞ다가
노령빅닉 여쥬어 쇼임ᄌᆞ로 일케ᄒᆞ이
농가의 극ᄒᆞᆫ보빅 공현이 일탄말가
옛틱슈 공ᄉᆞᄒᆞ믈 ᄌᆞ셔이 드러보쇼
큰칼파라 큰쇼ᄉᆞ고 져근칼노 쇼치ᄉᆞ셔
빅셩으로 궐농ᄒᆞ이 이런치졍 엇더할고
블상타 각면임장 페의파립 쥬져ᄒᆞ여
허다공납 슈ᄉᆡ즁의 츈ᄒᆞ츄동 월당잇셔
빅셩의 심믈펴예 ᄎᆞ려ᄎᆞ려 시기더이
ᄌᆡ가라나 려온후의 각향공납 미리바다
츄동의 바들공납 졍쵸의 츌질ᄒᆞ고
동등의 밧칠거실 ᄒᆞ간의 ᄎᆡᆨ츌ᄒᆞ여
민간슈ᄉᆡ 쳐연ᄒᆞᆫᄃᆡ 관가독쵹 셩화갓가
쳬계돈과 장변이을 젼젼이 취ᄒᆞ다가
급ᄒᆞᆫ관욕 면ᄒᆞᆫ후의 이달가고 져달오ᄆᆡ
육방ᄒᆞ인 토ᄉᆡᆨᄒᆞ문 염나국의 귀쥴갓다
츄상갓탄 져호통은 쳘셕갓탄 져쥬먹을
이리치고 져리친이 삼혼구빅 나라난다
씨난거신 ᄌᆡ믈이요 드난거신 돈이로쇠
그연셧달 슈ᄉᆡ시예 이삼빅양 포음지이
가장젼지 다판후의 일가친쳑 탕진ᄒᆞᆫ다
이런페단 부쵹다고 ᄯᅩᄒᆞᆫ페단 지여ᄂᆡ되
창역죠 열말나락 고금의 업난페단
작연이포 슈ᄉᆡ후의 결환으로 분급ᄒᆞᆫ이
블슈졔방 막켜시ᄆᆡ 창ᄉᆡᆨ이ᄉᆡᆨ 업다ᄒᆞ여
ᄒᆞᆫ빅의 열말나락 창역죠라 일홈지여
법박긔 가렴ᄒᆞᆫ이 이런페단 ᄯᅩ잇실가
본읍결슈 셰아린이 삼쳔육빅 여결이라
열말나락 슈합ᄒᆞᆫ이 이쳔육빅 여셕이라

열연연쳔 ᄉᆞᄇᆡᆨᄉᆞᆨ을 ᄇᆡᆨ판으로 증민ᄒᆞᆫ이
결환으로 분급ᄒᆞᆫ이 우리됴션팔도 만컨만은
창역죠 열말나락 우리거창 ᄲᅮᆫ이로쇠
ᄐᆡ죠ᄃᆡ왕 명이신가 황졍승의 분부신가
입입간신 지은농ᄉᆞ 필필고상 ᄊᆞᄂᆡᄇᆡ을
나라봉향 더져두고 아젼이쇽 몬져ᄒᆞᆫ이
어와셰상 션ᄇᆡ임ᄂᆡ 글공부 ᄒᆞ지말고
진ᄉᆞ급졔 구치마오 부모쳐ᄌᆞ 고상ᄒᆞ네
버셔노코 아젼되면 만죵녹이 게잇난이
쥘쌈지 안이여든 쇼ᄆᆡ예 드단말가
망셕즁 되야던가 놀언ᄃᆡ로 노라쥬네
이포을 민증시겨 읍외각창 츙실ᄒᆞ다
젹슈가 미쳥ᄒᆞ야 분셕ᄒᆞ기 어인일고
분셕도 ᄒᆞ련이와 허각공각 더옥분타
ᄇᆡᆨ쥬의 분급ᄒᆞ기 져도쏘ᄒᆞᆫ 무렴턴가
환상분급 ᄒᆞ난날의 ᄌᆡ인광ᄃᆡ 블너드려
노ᄅᆡᄒᆞ고 ᄌᆡ죠시계 온갓장난 다시긴이
젼쳠후고 ᄒᆞ난거동 이ᄆᆡᄇᆡᆨ양 방ᄉᆞᄒᆞ다
압갑쏘다 ᄉᆞ모관ᄃᆡ 우리임군 쥬신ᄇᆡ라
이런장난 다ᄒᆞᆫ후의 일낙셔산 환혼이라
침침칠야 분급ᄒᆞᆫ이 허각공각 구별할가
아젼괄노 셜난즁의 굴노ᄉᆞ령 독쵹ᄒᆞ이
ᄉᆞ오십이 면ᄃᆡᄇᆡᆨ셩 죵일굴머 ᄇᆡ곱파라
환상일코 우난ᄇᆡᆨ셩 열의일곱 쏘셔이라
공ᄉᆞ도 명결이요 글도쏘ᄒᆞᆫ 문잘일네
하빈이씨 산숑제ᄉᆞ 고금의 희ᄒᆞᆫᄒᆞ다
우셕방분 칭탈ᄒᆞ야 부지쳔지 일너시이
쳔지을 모로거든 군신유의 어이알이
민간폐단 다못ᄒᆞ여 학궁페단 지여ᄂᆡ되
신츅연윤 삼월의 ᄌᆡ가ᄌᆞ졔 경시볼졔
상교셔원 각향궁의 ᄉᆡᆨ장고ᄌᆞ ᄌᆞ바드려
유건둘식 도포둘식 ᄎᆞ려ᄎᆞ려 바다ᄂᆡ되
업다ᄒᆞ고 발명ᄒᆞ면 쇽젼넉양 물여ᄂᆡ이
유건도포 바다다가 굴노ᄉᆞ령 난와쥬워
장즁의 션졉할졔 노션ᄇᆡ 쑤며ᄂᆡ이
공부ᄌᆞ임 씨신유건 츄밍ᄌᆞ임 입던도포

[현대역]

거창가(居昌歌)
규장각(奎章閣)1 모든학사 한퇴지(韓退之)의2박식(博識)인가
형조(刑曹)의 일당상과 금부(禁府)3의 판의금(判義禁)4은
고요(皐陶)5의 남은경계 직설(稷契)6의 법을 받아
전옥(典獄)7의 주부(主簿)8들은 장석지(長釋之)9의 칭평(稱平) 일네
십자가상(十字街上)10 돌아드니 종루(鐘樓)11가 거기로다
서촉(西蜀) 동산철을 바리바리 실어다가
대풍기(大風器) 불어내니 만팔천년(萬八千年) 쇠북이라
이십팔수 삼십삼한 조석으로 개폐하니
하우씨(夏禹氏) 구정(九鼎)12인가 제도(制度)도 거룩하다
염제(炎帝)13의 일중위시(日中爲市) 백물시정(百物市井) 버렸는데
도불십유(道不拾遺)14하는풍속(風俗) 갈천세계(葛天世界)15 시절(時節)인가
구리개16 굽어보니 신농씨(神農氏) 유업(遺業)이며
퉁교 대소리 강구(康衢)의 동요(童謠)로다
인정전(仁政殿)17높은 집의 오현금(五絃琴) 남풍시(南風詩)18를
백공(百工)이 상화(相和)하니 건곤일월(乾坤日月) 밝았어라
재악관 풍악(風樂)소리 궁상각치(宮商角徵) 오음육률(五音六律)
소소구성(簫韶九成)19 맑은 곡조 봉학(鳳鶴)이 춤을 춘다
한강수 깊은 물의 용마하도(龍馬河圖) 낫단말가
박석치(薄石峙) 넘어드니 태학관(太學舘)20이 거기로다
성균관(成均館)21 장한 집과 명륜당 빗난 집의
우리부자(夫子) 주벽(主壁)22되어 안증사맹(顔曾思孟)23 배향(配享)하고
그 남은 칠십이현(七十二賢)24 삼천문도(三千門徒)25 시위중(侍衛中)의
아동방(我東方) 제대현(諸大賢)도 차례로 승무(陞廡)26하니
우리 조선 의관문물(衣冠文物) 장하고 거룩하다
소중화(小中華)라 이른 말씀 이제와 아노매라
태조대왕(太祖大王) 성덕(聖德)으로 사백여년(四百餘年) 내려오며
일출작(日出作) 일입식(日入息)의27 함포고복(含哺鼓腹) 하는 백성
남혼여가(男婚女嫁) 즐거움도 태평연월(太平烟月) 좋을시고
장하다 계명구폐(鷄鳴狗吠)28 사경(四境)29의 들었도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병자호란(丙子胡亂) 중간의 끼친 근심
헌원씨(軒원氏)30 영제(靈帝)로되 치우(蚩尤)의 난을 당하고
탕무(湯武)31의 성치로써 정벌(征伐)이 있었으며
그 남은 서절구투(鼠竊狗偸)32 어찌 다 기록(記錄)하리
원수네라 갑오년(甲午年)이 동지십삼(冬至十三)33 원수로다
창오산색(蒼梧山色)34 저문 날의 옥연승천(玉輦升天) 하시거라

여상고비(如喪考妣)35 하는 비회(悲懷) 심산궁곡(深山窮谷) 일반(一般)이라
하늘같은 대왕대비(大王大妃)36 일월(日月)같은 자성전하(慈聖殿下)37
태임(太姙)38의 덕이신가 선인황후(宣人皇后) 법(法)을 받아
수렴청정(垂簾聽政) 하신 후로 팔역(八域)이 안연(晏然)하다
도광삼칠(道光三七)39 신축년(辛丑年)의 우리성상(聖上) 즉위(卽位)하사
춘추방성(春秋方盛) 십오세에 한소제(漢昭帝)40의 총명(聰明)이며
주성왕(周成王) 어린임군 팔백연(八百年) 기업(基業)이니
우리전하(殿下) 어리시되 팔천세(八千歲)나 바래나니
작년(昨年)도 풍년(豊年)이요 금년(今年)도 풍년이라
천무열풍(天無烈風) 음우(淫雨)하고 해불양파(海不揚波) 하거구나41
입아증민(粒我烝民) 백성들아42 어서가고 바삐가자
돈화문43의 걸린윤음(綸音)44 한무제의 조서(詔書)신가
초목군생(草木群生) 즐거움도 이도 또한 성화로세
장안청누(長安靑樓) 소년들아 협탄비응(挾彈飛鷹)45 하련이와
태평곡 격양가(擊壤歌)를 이내 노래 들어보소
어제청춘(靑春) 오는백발(白髮) 낸들아니 모를소냐
□하□속 우리인생 후회한들 어이하리
장대에 고운제집 내꽃 좋다 자랑마라
세상의 지난해를 뉘라서 금할소냐
동해의 흐른 물이 다시오기 어려워라
뒷동산 피는 꽃은 명년삼월(明年三月) 피건마는
우리인생 늙은후의 다시소년(少年) 어렵도다
낙양성(洛陽城) 십리(十里)밖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의
영웅호걸(英雄豪傑) 몇몇이며 절대가인(絶代佳人) 몇몇이요
우락중분(憂樂中分) 미백년(未百年)의 소년행락(少年行樂) 편시춘(片時春)46을
이러한 태평성세 아니 놀고 무엇하리
개벽후(開闢後) 내린사적(事蹟) 역역(歷歷)히 들어보소
요순우탕(堯舜禹湯) 문무주공(文武周公) 공맹안증(孔孟顔曾) 정주부자(程朱夫子)
도덕(道德)이 관천(貫天)할사 만고성인(萬古聖人) 일렀으되
요망한 후생들아 이를 말씀 아니로세
그 남은 고래영웅(古來英雄) 낱낱이 세아리니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맹궁 사랑삼고
만리성(萬里城) 단장삼아 억만세(億万歲) 비꼈어라
육국제후(六國諸候) 조공(朝貢)할제 삼천시에 시위(侍衛)하고
삼신산(三神山) 멀고먼데 원(願)하오니 불사약(不死藥)을
동남동여(童男童女) 오백인(五百人)이 소식조차 돈절(頓絶)하며
사구평대(沙邱平臺)47 저문날이 여산청총(驪山靑塚)48 속절없네
우산(牛山)의 지난해는 제경공(齊景公)의 눈물이며49

분수(汾水)50의 추풍곡(秋風曲)51은 한무제(漢武帝)의 슬픔이라
불상타 용봉비간(龍鳳比干)52 만고충신(萬古忠臣) 이었는데
충언직간(忠言直諫) 쓸데없어 주검도 참혹하다
장하다 백이숙제 천추명절(千秋名節) 일렀으되
수양산(首陽山) 깊은골의 채미곡(採薇曲)이 처량하다
강태공(姜太公)53 황석공(黃石公)54과 사마양저(司馬讓苴)55 손빈오기(孫臏吳起)
전필승(戰必勝) 공필취(功必取)의 용병(用兵)이 여신(如神)하되
못치나니 염나국(閻羅國)을 한번 죽음 못면하고
면산(綿山)의 봄이드니 개자추(介子推)의 무덤이며56
삼강(三江)의 성낸조수(潮水) 오자서(伍子胥)의 정령(精靈)인가57
멱나수(汨羅水) 깊은 물의 굴삼려(屈三閭)의 충혼이라58
말잘하는 소진장의(蘇秦張儀)59 천하를 횡행(橫行)하여
육국제후 다 친하되 염내왕 못달래어
두견성세 □중의 혼백조차 울어있고
맹상군(孟嘗君)60 계명구도 (鷄鳴狗盜) 신릉군(信陵君)61 절부교명(窃符矯命)
전국시(戰國時) 호걸이되 삼천식객(三千食客) 어디두고
황산세우(荒山細雨) 깊은 중의 일부토(一抔土) 가련하다
동작대(銅雀臺) 석두성(石頭城)의 영혼이 자취없고
부춘산(富春山) 돌아드니 엄자릉(嚴子陵) 간데없고
적벽강(赤壁江) 굽어보니 소자첨(蘇子瞻)62 어디간고
진처사(晉處士) 도연명(陶淵明)63은 집터만 비여있다
역발산(力拔山) 초패왕(楚覇王)은 천하장사 일너시되
시불이(時不利) 취불하여 팔천병(八千兵) 흩어지고
우미인(虞美人) 손목잡아 눈물로 하직하고
오강풍랑(烏江風浪) 수운중(愁雲中)의 칠십여전(七十餘戰) 가소롭다
운주유악(運籌帷幄)64 장자방(張子房)65과 동남풍 제갈공명(諸葛孔明)
천문지리 중찰인사(中察人事) 만고조화(萬古造化) 가졌으되
절통(切痛)타 한번죽음 조화로 못 면하고
사마천(司馬遷)66 한퇴지와 이태백 두자미(杜子美)는
제일문장(第一文章) 이였마는 장생불사(長生不死) 못하였고
독행천리(獨行千里) 관운장(關雲長)67은 명진천하(名振天下) 하였어라
거룩하다 명촉달조(明燭達朝)68 천추늠늠(千秋凜凜) 뿐이로세
장판영웅 장익덕(張翼德)69은 편비(偏裨)70에 죽단말가
당돌(唐突)타 오왕손권(吳王孫權)71 꾀많은 위왕조조(魏王曹操)72
삼분천하(三分天下) 분분(紛紛)중의 이도 또한 영웅이되
왕사(王榭)의 장한풍류 연자(鷰子)만 날아든다
곽분양(郭汾陽) 백자천손(百子千孫) 일시호강 저뿐이라
도주(陶朱)의돈(猗頓)73 석숭(石崇)74은 부자중(富者中) 으뜸이되

일생일사(一生一死) 한정(限定)있어 값으로 못 사내고
월서시(越西施) 우미인(虞美人)과 왕소군(王昭君) 양귀비(楊貴妃)는75
선천연후(先天年後) 천연의 정국지색 가졌으되
옥태화용(玉態花容) 고운양자(樣子) 진인중의 묻혀있어
추우오동(秋雨梧桐) 엽낙시(葉落時)에 상혼육골 울어있고
팔백년(八百年) 팽조수(彭祖壽)76와 삼천갑자(三千甲子) 동방삭(東方朔)77도
피일시(彼一時) 차일시(此一時)라 죽어지면 그만이요
안기생(安期生)78적송자(赤松子)79는 동해상(東海上) 신선이되
귀로만 들어있제 눈으로 못 보와라
천지도 개벽하고 일월도 회명(晦明)커든
하물며 우리인생 천만년 장생(長生)하랴
춘화(春花) 추엽낙(秋葉落)의 세월이 덧없나니
이런청춘 소년들이 아니놀든 못하리라
조선삼백 이십팔주 간곳마다 태평이되
어찌타 우리거창(居昌) 읍운(邑運)이 불행(불행(不幸))하야
일경(一境)이 도탄(塗炭)되고 만민(萬民)이 구갈(俱竭)하여
요순의 성치(聖治)로서 사흉(四凶)80이 있었으며
제후왕의 명감(明鑑)으로 아대부(阿大夫) 있단말가
일월이 밝건마는 복분(伏盆)의 난조(難照)하고
양춘(陽春)의 포덕(布德)인들 음애(陰崖)의 미칠소냐
이재가(李在稼)81가 어인겨며 저재가 어인견고
거창이 폐창(廢昌)되고 태수가 원수로세
책방(冊房)82이 취방(取房)83하고 진사(進士)가 다사(多事)하다
어와세상 사신임네 우리거창 폐단(弊端)보소
이재가 나려온후의 온갖폐단 지어내되
구중천리(九重千里) 멀고멀어 이런민정(民情) 모르시네
징청각(澄淸閣)84 높은집의 관풍찰속(觀風察俗) 우리순상(巡相)85
읍보(邑報)86만 준신(遵信)하니 문불서양(問佛西洋)87 아닐런가
이노포(吏奴逋)88 수만석(數萬石)을 백성이 무슨죄로
너돈식(四錢式) 분급(分給)하고 전석(全石)으로 물러내니
수천석(數千石) 포흠아전(逋欠衙前)89 매한개 안 잊히고
두승곡(斗升穀)90 물리잖고 백성만 물러내니
대전통편(大典通編)91 조목중(條目中)의 이런법이 있단말가
이천사백 방채전(放債錢)92이 이도 또한 이포(吏逋)여날
결복(結卜)93의 묻혀 내여 민간의 증출하니
왕세(王稅)가 소중커든 요망한 아전포흠
백성의 수쇄(收刷)94하니 비단금연 폐단이랴
본읍지형(本邑地形) 둘러보니 삼개합천95 안의지예(安義知禮)96

옛고을 가운데로 매연절복 상정할제
타읍(他邑)은 열 한 두냥 민간의 출질(出秩)하고
거창은 십오육냥 열연이 가증하며
타읍도 목상납(木上納)97의 호조혜청(戶曹惠廳)98 받자하고
본읍도 목상납의 호조혜청 받자하니
다같은 왕민(王民)으로 왕세(王稅)를 같이하며
어찌타 우리고을 두석양식 가증할고
더구나 원통하다 백사장(白沙場)의 결복(結卜)이라
근래(近來)에 낙강성천(落江成川)99 구산(邱山)같이 쌓였는데
절통타 우리백성 재(灾)100한 짐 못 먹어라
재결(灾結)101의 회감(會減)하문 묘당처분(廟堂處分) 있건마는
묘당회감(廟堂會減)102 저재결을 중간투식(中間偸食) 뉘하난야
가포중(價布中)103 아궁포는 제일로 무거운 가포(價布)라
삼사년(三四年) 내려오며104 학정이 자심(滋甚)하다
아궁포 한당번(當番)을 일향(一鄕)의 편침(編侵)하여105
많으면 일이백양(一二百兩) 적으면 칠팔십양(七八十兩)
모야무지(暮夜無知) 남모르게 책방으로 들어가니
이가포(價布) 한당번의 몇몇집이 탕산하냐
그남은 허다가포(許多價布) 수육군병(水陸軍兵) 그만두고
인이보(人吏保) 노령보(奴令保)며 선무포(選武布)106 제번포(除番布)107라
명색다른 저가포를 백가지로 침책하여
김담사리(金淡沙里) 박담사리(朴淡沙里)) 큰아기며 작은아기
어서가고 바삐가자 상작청의 잡혔단다
전촌(前村)의 지난개난 관차(官差)108보고 꼬리치네
뒷집의 우는 아가 읍인 왔다 울지마라
황구충정(黃口充丁)109 설워마소 일신양역(一身良役)110 내있노라
생민가포(生民價布)111 그만두고 백골징포(白骨徵布)112 무슨 일인가
황산고총(荒山古塚)113 노방강시(路傍僵屍)114 그대신세 참혹하다
월낙삼경(月落三更) 깊은 밤과 천음우습(天陰雨濕) 슬픈 밤의
가포탈(價布頉)115 네원정(冤情)116을 뉘라서 청시하리
청산백수 우는 과부 그대신세 처량하다
전생이생 맺은 연분 날 버리고 어디간고
엄동섣달 긴긴밤의 독수공방(獨守空房) 설운사정
남산의 지신 밭을 어느 가장 갈아주며
동산의 익은 술을 뉘다리고 권할소냐
어린자식 아비불러 어미간장(肝腸) 다 녹인다
옆옆이 우는 자식 배고파라 설은 사설
가장(家長)생각 서른 중의 죽은 가장 가포(價布)라네

흉악하다 주인 놈아 과부(寡婦)손목 끄어내어
가포돈 그만두고 차사전예(差使前例) 먼저 찾아
필필(疋疋)이 짜낸 배를 탈취하여 가단말가
흉악하고 분(憤)한일을 또다시 들어보소
정유년 시월(十月)달의 적화면(赤火面)의 변(變)이났네
우거양반(寓居兩班) 김일광(金日光)은 선무포(選武布)가 당(當)한말가117
김일광 나간후의 해면임장(該面任掌) 수포(收布)할세
양반내정(兩班內庭) 돌입(突入)하여 청춘분여 끄어내니
반상명분 중(重)한중(中)의 남여유별(男女有別) 지엄(至嚴)커든
광언패설(狂言悖說) 하감(何敢)으로 두발분여 하단말가
장하다 저 부인이 이런욕 당한후의
안이 죽고 쓸데없어 손목끊고 직사하니
백일(白日)이 무광(無光)하고 청산(靑山)이 욕열(欲裂)이라
백년회로 삼색연분 일검하의 죽단말가
흉악하다 임장놈아 너도 또한 인유(人類)어든
여모정열(女慕貞烈) 굳은 마음 네라감이 능모(陵侮)할가
만경창파 물을질러 나의분함 시치고저
남산녹죽(南山綠竹) 수(數)를 둔들 네 죄목을 다할소냐
열여정문(烈女旌門) 고사(姑舍)하고 대사(代死)118도 못 시기니
두견성(杜鵑聲) 세우중(細雨中)의 혼백인들 아니울랴
금년사월(今年四月) 본읍(本邑)우박(雨雹) 그적원이 아닐런가
학정(虐政)도 하런이와 살해인명 어인일고
한유택(韓有宅) 정치광(鄭致光)과 전부대 강일상아
너의 등은 무슨죄로 장하(杖下)의 죽단말가
한달 만의 죽은 사람 보름만의 죽은 백성
오륙인(五六人)이 되었으니 그적원이 어디메뇨
불쌍하다 저 귀신아 가련하다 저 귀신아
용천검(龍泉劍)119 빗겨들고 일산(日傘)앞에 전배(前陪)120서서
아침저녁 개폐문의 고각성(鼓角聲)의 울어주니
공산편월(空山片月) 조각달과 백양청사(白楊靑莎) 떨기중의
원통타 우는소리 재가신세 온전할까
비명(非命)의 죽은 원정 염나국의 상소(上疏)하니
염나왕이 비답(批答)121하되 너의 정지 가긍하다
아직물러 고대하면 별반엄치(別般嚴治) 내하리라
야차나찰(夜叉羅刹)122 쇠사슬로 뉘 분부라 거역하리
우리명부(冥府) 십전중(十殿中)123의 철산옥(鐵山獄)이 제일중(中)타
진지조고(秦之趙高)124 송진회(宋秦檜)125도 다 그곳에 갇혔으니
예로부터 탐관오리 철산옥을 면할소냐

작년회곡(昨年會哭)126 상회판의 통문수 사실(査實)하야
이우석(李禹錫) 잡아들여 죽일거조 시작하니
그어마님 거동보소 청상과택(靑孀寡宅) 키운 자식
악형(惡刑)함을 보기 싫어 결항치사(結項致死)127 먼저하니
고금사적(古今事蹟) 나려본들 이런 변이 또 있을까
폐단(弊端)없이 치민하며 회곡상회 거조할가
무죄백성 죽게하니 개과천선(改過遷善) 아니하고
춘추순(春秋巡) 감사드려 거행이 자록하다
민간차일 받아다가 관가사면(官家四面) 둘러치니
칙사행차(勅使行次)128 아니어든 백포장(白布帳)이 무슨일인가
거창삼백 삼십동의 삼십동은 차일(遮日)밧고
삼백동은 속(贖)129받으니 합한 돈이 오륙백냥
책방의 분식하고 공방아전(工房衙前) 살찌겠다
대차담(大茶啖)과 소차담(小茶啖)130이 나라회감(會減) 있건마는
대소차담 드린 후의 별찬으로 내아(內衙)진지131
사돈팔촌 부당(不當)한데 내아진지 무슨일인가
오백리(五百里) 봉화선의 각화사(覺化寺)가 어디메뇨
생갓짐채132 구하다가 진지상의 별찬(別饌)하니
나물반찬 한 가지를 오백리에 구탄말가
우리거창 중대읍(重大邑)의 칼자감상133 없다하여
전주감영(全州監營) 치치달나 감상칼자 세인(貰인)하니
안의수 민치서(閔致舒)가 기롱(譏弄)으로 이른 말이
너의집 친기제물(親忌祭物)134 오백리에 구할소냐
내아진지 하지말고 내아방수 들어보소
이사람의 행실보소 위소온일 또있도다
산암당 치치달라 다른구경 그만두고
노소제승 불러들여 함을적간 먼저하니
가풍인가 세풍인가 씨난고지 어디메며
외택인가 친택인가 가리기도 조심하다
고이하다 예절풍속 관장마당 그러하냐
백성의 절각농우(折脚農牛) 어찌타 앗아다가
노령배(奴令輩) 내어주어 소임자(任者)로 일케하니
농가(農家)의 극한보배 공연히 일탄말가
옛태수 공사하물 자세히 들어보소
큰칼팔아 큰소사고 적은칼로 송치사서135
백성으로 궐농하니 이런치정 어떠할꼬
불상타 각면임장(各面任掌) 폐의파립(弊衣破笠) 주저하여
허다공납 수쇄중(收刷中)의 춘하추동 월당(月當)있어

백성의 힘을페어 차례차례 시키더니
재갈아나 려온후의 각향공납 미리받아
추동의 받을공납 정초의 출질(出秩)136하고
동등의 바칠것을 하간의 책출하여
민간수쇄(收刷) 천연(遷延)한데 관가독촉 성화(星火)같다
체계돈과 장변이(邊利)를 전전(轉轉)이 취하다가
급한관욕(官辱) 면한후의 이달가고 저 달오매
육방하인(六房下人) 토색(討索)하문 염나국의 귀졸(鬼卒)같다
추상(秋霜)같은 저호통은 철석(鐵石)같은 저 주먹을
이리치고 저리치니 삼혼구백 날아난다
씨난거신 재물(財物)이요 드난거신 돈이로세
그연섣달 수쇄(收刷)시에 이삼백냥 포흠(逋欠)지니
가장전지(家庄田地) 다판후의 일가친척 탕진(蕩盡)한다
이런폐단 부족다고 또한폐단 지어내되
창역조(倉役租)137 열말나락 고금의 없는 폐단
작년이포(昨年吏逋) 수쇄(收刷)후의 결환(結還)으로 분급(分給)하니
불수계방(不受計方)138 맡겼으니 창색이식(倉色利食) 없다하여
한맥의 열말나락 창역조라 이름지어
법(法)밖에 가렴(加斂)하니 이런 폐단 또 있을까
본읍결수 세아리니 삼천육백 여결(餘結)이라
열말나락 수합하니 이천육백 여석(餘石)이라
열연연천 사백석을 백판으로 증민하니
결환(結還)으로 분급(分給)하니139 우리조선팔도 많건마는
창역조 열말나락 우리거창 뿐이로세
태조대왕 명(命)이신가 황정승(黃政丞)140의 분부(分付)신가
입입간신(粒粒艱辛)141 지은농사 필필고생(疋疋苦生) 짜낸 배를
나라봉향 그만두고 아전이속 먼저하니
어와세상 선배님내 글공부 하지말고
진사급제(進士及第) 치마오 모처자 고생하네
덮어놓고 아전(衙前)되면 만종록이 게있나니
쥘쌈지142 안이어든 소매에 드단말가
망석중143 되었던가 놀던대로 놀아주네
이포(吏逋)를 민징(民徵)시겨144 읍외각창(邑外各倉) 추보(追補)하다145
적수가 미충(未充)하여 분석(分石)하기 어인일고
분석도 하련이와 허각공각(虛殼空殼) 더욱분하다
백주(白晝)의 분급(分給)하기 저도 또한 무렴(無廉)턴가
환상분급(還上分給) 하는 날의 재인광대(才人廣大) 불러들여
노래하고 재조시계 온갖장난 다시키니

전첨후고(前瞻後顧) 하는 거동 이매백양 방사(倣似)하다
아깝도다 사모관대(紗帽冠帶) 우리임군 주신배라
이런장난 다한후의 일락서산 황혼이라
침침칠야(沈沈漆夜) 분급하니 허각공각 구별할가
아전괄노 현난중(眩亂中)의 관노사령(官奴使令) 독촉하니
사오십이 면대백성 종일 굶어 배고파라
환상잃고 우는 백성 열의 일곱 또 서이라146
공사(公事)도 명결이요 글도 또한 문장(文章)이네
하빈이씨 산송제사(山訟題辭)147 고금의 희한하다
위석방분(委席放糞)148 칭탈(稱頉)149하여 부지천(不知天地)지 일너시이
천지를 모르거든 군신유의(君臣有義) 어이알리
민간폐단(民間弊端) 다 못하여 학궁폐단(學宮弊端)150 지어내되
신축년(辛丑年)151 윤삼월(閏三月)의 재가자제(在稼子弟) 경시(京試)볼제
향교서원(鄕校書院) 각학궁(各學宮)의 색장고자(色掌庫子) 잡아들여
유건둘식(儒巾)도포(道袍)둘식 차례차례 받아내되
없다하고 발명하면 속전넉냥(贖錢四兩) 물려내니
유건도포(儒巾道袍) 받아다가 관노사령(官奴使令) 나눠주어
장중(場中)의 선접할제 노(奴)선배 꾸며내니
공부자(孔夫子)임 쓰신유건(儒巾) 추맹자임 입던도포

[각주]

1) 규장각(奎章閣) : 조선 정조 즉위년(1776)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 고종 32년(1895)에 규장원으로 고쳤다가 34년(1897)에 다시 예전 이름으로 고침. 역대 임금의 글이나 글씨 • 고명(顧命) • 유교(遺敎) • 선보(璿譜) • 보감(寶鑑) 따위와 어진(御眞)을 보관하고, 많은 책을 편찬 • 인쇄 • 반포하여 조선 후기의 문운(文運)을 불러일으키는 중심 역할을 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 함.

2) 한퇴지(韓退之)의 :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한유(韓愈), 자는 퇴지(退之)임. 벼슬은 국자감(國子監) 사문박사(四門博士), 국자박사(國子博士), 이부시랑(吏部侍郞)을 하였음.

3) 금부(禁府) : 의금부(義禁府)의 약칭.

4) 판의금(判義禁) :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의 약칭. 의금부의 으뜸 벼슬로서 종 1품을 말함.

5) 고요(皐陶) : 순임금의 신하. 자는 정견(庭堅) • 사구(司寇)이며, 옥관(獄官)의 장(長)을 지냈음.

6) 직설(稷契) : 당우(唐虞) 시대의 두 명신(名臣)인 직(稷)과 설(契). 직의 이름은 기(棄)인데 농업을 관장했으며 주(周)의 조선(祖先)이고, 설은 교육을 관장했으며 은(殷)의 조선(祖先)임.

7) 전옥(典獄) : 전옥서(典獄署)의 약칭. 구금된 죄수의 행형(行刑)을 관장하던 부서임.

8) 주부(主簿) : 전옥서에 속해 있던 관원.

9) 장석지(長釋之) : 한나라 도양(堵陽) 사람. 자는 계(季)이며 벼슬은 문제(文帝) 때 복야(僕射)를 지냈고, 뒤에 정위(廷尉)가 되었음. 법 집행이 엄하고 공평하여 당시 사람들은 장석지가 정위 된 후에 천하에 억울한 백성이 없어졌다고 말할 정도였음.

10) 십자가상(十字街上) : 현재의 종로의 네거리를 말함.

11) 종루(鐘樓) : 조선시대 한성부의 도성내(內) 전체의 중심이 되는 곳에 종을 달아 맨 누각.

12) 구정(九鼎) : 우임금 때 구주(九州)의 쇠를 공물로 받아 주조한 솥으로, 하(夏) • 은(殷) 이래 전해진 천자의 보물임.

13) 염제(炎帝) : 고대(古代) 제왕 신농씨(神農氏)인데, 화덕(火德)으로 왕이 되었음. 백성들에게 농경을 가르쳤으며 백초(百草)를 맛보아 약을 만들고 하루 중 때를 정해 시장을 열어 상업을 일으킴.

14) 도불십유(道不拾遺) : 인심이 좋아 길에 흘린 물건도 주워가지 않음.

15) 갈천세계(葛天世界) : 갈천(葛天)은 고대의 제왕. 그의 정치는 말하지 않아도 믿게 되고 가르치지 않아도 행해질 정도였음. 『제왕세기(帝王世紀)』에는 유소씨(有巢氏) 이후에 복희씨(伏羲氏)의 이 름을 답습하여 불렀다고 함.

16) 구리개 : 동현(銅峴). 현재 을지로 입구 일대를 말함. 당시에는 길이 질어서 구릿빛으로 거무틱틱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함.

17) 인정전(仁政殿) : 창덕궁(昌德宮)의 정전(正殿).

18) 남풍시(南風詩) : 순임금이 남훈전(南薰殿)에서 오현금을 타며 불렀다는 노래.

19) 소소구성(簫韶九成) : 순임금이 지은 음악의 곡명임.

20) 태학관(太學舘) : 성균관의 별칭.

21) 성균관(成均館) : 조선조 국학(國學).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文廟)와 성학(聖學)을 강학하는 명륜당(明倫堂)을 총칭하는 말. 국자감(國子監), 태학(太學) 등으로 불리기도 함.

22) 주벽(主壁) : 사당이나 사원(祠院)에 모신 여러 위패 중에서 주장되는 위패.

23) 안증사맹(顔曾思孟) : 공자의 종통(宗統))을 이은 인물들. 안회(顔回),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24) 칠십이현(七十二賢) :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72명의 뛰어난 제자들을 말함.
25) 삼천문도(三千門徒) : 공자의 문하생이 3,000명이었다고 함.
26) 승무(陞廡) : 학행(學行)과 덕망(德望)이 뛰어난 사람들을 문묘(文廟)에 배향(配享)하는 것.
27) 일출작(日出作)일입식(日入息)의 : 「격양가(擊壤歌)」 중의 한 두 구절. 이것은 요임금 시절에 천하가 태평하여 백성들이 불렀다는 노래.
28) 계명구폐(鷄鳴狗吠) : 개와 닭의 울음소리가 서로 들리는 것.
29) 사경(四境) : 동, 서, 남, 북 사방의 지경이나 경계.
30) 헌원씨(軒轅氏) : 황제(黃帝)의 이름. 그가 헌원(軒轅)의 언덕(지금의 하남성 신정현)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렇게 불림.
31) 탕무(湯武) : 은(殷)나라의 탕왕(湯王)과 주(周)나라의 무왕(武王). 모두 자기가 섬기던 임금을 방벌(放伐)하여 나라를 얻은 임금들임.
32) 서절구투(鼠竊狗偸) : 쥐나 개와 같은 좀도둑을 말함.
33) 동지십삼(冬至十三) : 갑오년 (甲午년年)동짓달 13일은 순조가 승하한 날.
34) 창오산색(蒼梧山色) : 창오산(蒼梧山)은 호남성(湖南省) 영원현(寧遠縣)의 산 이름. 구의(九疑)라고도 하며, 순임금이 이곳에서 붕어(崩御)했음.
35) 여상고비(如喪考妣) : 왕의 승하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과 같이 슬픈 일이라는 뜻.
36) 대왕대비(大王大妃) : 헌종의 할머니, 곧 순조비(純祖妃)를 말함.
37) 자성전하(慈聖殿下) : 헌종의 모후(母后).
38) 태임(太姙) : 주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
39) 도광삼칠(道光三七) : 도광(道光)은 청나라 선종(宣宗)의 연호.
40) 한소제(漢昭帝) : 서기전 86~81년까지 재위했음.
41) 천무열풍(天無烈風)음우(淫雨)하고 해불양파(海不揚波)하거구나 : 국가가 태평무사함을 표현한 말.
42) 입아증민(粒我烝民)백성들아 : '내개 쌀밥을 먹여주는 많은 백성들'이란 의미임.
43) 돈화문 : 창덕궁의 남쪽 정문.
44) 윤음(綸音) : 임금이 백성이나 신하에게 내리는 말.
45) 협탄비응(挾彈飛鷹) : 거문고와 사냥으로 소일함.
46) 우락중분(憂樂中分)미백년(未百年)의 소년행락(少年行樂)편시춘(片時春) : 근심과 즐거움이 뒤섞인 속에서 백년을 다 못사는 것이 인생이요, 젊어서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뜻임.
47) 사구평대(沙邱平臺) : 하북성(河北省)북성 평향현(平鄕縣)의 동북쪽에 있는 지역. 은나라의 주왕(紂王)이 신축한 대(臺)로 진시황(秦始皇)이 죽은 곳.
48) 여산청총(驪山靑塚) : 여산(驪山)은 섬서성(陝西省) 임당현(臨潼縣)의 동남방에 있는 산. 진시황을 장사 지낸 곳.
49) 제경공(齊景公)의 눈물이며 : 제경공(齊景公)은 우산(牛山)에 도피하여 지냈는데, 그 북쪽이 바로 그의 도성이었으므로 늘 그곳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함.
50) 분수(汾水) : 산서성(山西省) 영무현(寧武縣) 서남의 관잠산(管涔山)에서 흘러내리는 물.
51) 추풍곡(秋風曲) : 추풍사(秋風辭)를 말함. 한무제가 하동(河東)에서 행차하여 후토(后土)에 제사하고, 중류에서 신하들과 술 마실 때 지은 노래.

52) 용봉비간(龍鳳比干) : 용봉(龍鳳)은 하(夏)의 걸왕에게 충간(忠諫)한 신하이고, 비간(比干)은 은나라 주왕(紂王)에게 직간(直諫)한 신하임.
53) 강태공(姜太公) : 주나라 초기의 현신(賢臣) 여상(呂尙). 여상은 주나라 동해 사람. 본성(本姓)은 강씨. 그의 선조가 여(呂)에 봉해졌으므로 여상으로 칭해졌음. 자는 자아(子牙)이고 문왕의 사부(師傅)로서 태공망(太公望) • 사상부(師尙父)로 불리기도 했으며, 무왕을 도와 은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천하를 평정한 공으로 제(齊)의 땅에 봉해졌음.
54) 황석공(黃石公) : 진나라가 말기 이상(圯上)에서 장량(張良)에게 병서를 주었다고 전해지는 노인.
55) 사마양저(司馬讓苴) : 사마(司馬)는 삼국시대 위나라의 명장 사마의(司馬懿), 양저(讓苴)는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군사감찰.
56) 개자추(介子推)의 무덤이며 : 춘추시대 진문공(晉文公)이 망명함에 그를 따라 19년 동안 각국을 역유(歷遊)했으나, 문공이 귀국하여 왕이 된 후 봉록(封祿)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어머니와 함께 면산(緜山)에 숨었다. 문공이 뒤에 그를 찾았으나 못 찾고 산에 불을 질러 마침내 개자추는 불타 죽었는데, 그 뒤 면산을 개산이라고도 하였음.
57) 오자서(伍子胥)의 정령(精靈)인가 : 오자서(伍子胥)는 춘추시대 월나라 사람 오원(伍員)임. 사(奢)의 아들이며 상(尙)의 아우이고 자는 자서(子胥)임. 부형이 모두 초나라의 평왕(平王)에게 살해되었을 때 자서는 오나라로 도망하여 오나라를 도와 월나라를 쳤으나, 참소로 오나라 부차(夫差)의 노여움을 입고 삼강(三江)에게 던져져 죽음을 당했음.
58) 굴삼려(屈三閭)의 충혼이라 : 굴삼려(屈三閭)는 굴원(屈原)임. 전국시대 초나라의 대부이며 문학가로 자는 평(平)이고, 회왕(懷王)의 신임이 두터웠음. 그런데 참소를 당하여 왕으로부터 소원(疏遠)해지게 되자 이소(離騷)를 지어 충간(忠諫)했으나, 용납되지 않아 멱나수(汨羅水)에 빠져 죽음.
59) 소진장의(蘇秦張儀) : 소진(蘇秦, ?~BC. 317)은 전국시대의 유세가. 장의(張儀)와 함께 종횡가(縱橫가(家))의 대표적 인물. 장의(張儀, ?~BC. 310)는 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벼슬자리를 노려 위 • 초를 떠돌다가 화씨지벽(和氏之壁)의 도범(盜犯)으로 몰려 죽음 직전에 놓이기도 했음.
60) 맹상군(孟嘗君) : 전국시대 제(齊)나라 전영(田嬰)의 아들. 이름은 문(文). 설(薛) 땅을 봉토로 받아 맹상군이 되었음.
61) 신릉군(信陵君) :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소왕(昭王)의 공자(公子)이며 안리왕(安釐王)의 이모제(異母弟)로 이름은 무기(無忌)이고, 신릉군은 그의 봉호(封號)임. 식객(食客)이 삼천명이나 되었음.
62) 소자첨(蘇子瞻) : 송나라 문장가 소식(蘇軾). 자는 자첨(子瞻), 호는 동파(東坡), 소순의 장자로서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 신종(神宗) 때 왕안석(王安石)과 뜻이 맞지 않아 황주(黃州)로 좌천되어 동파라 자호했으며, 철종(哲宗) 때 소환되어 한림학사,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음.
63) 도연명(陶淵明) : 동진(東晋)의 자연시인 도잠(陶潛)으로 자는 연명(淵明).
64) 운주유악(運籌帷幄) : 궁중이나 장군의 막사에서 전략을 세우는 일.
65) 장자방(張子房) : 전한(前漢)의 공신 장량(張良)으로 소하(蕭何) • 한신(韓信)과 함께 한나라 삼걸(三傑). 자는 자방(子房)임. 집안이 대대로 한(韓)의 대신이었는데, 한나라가 망하자 그 원수를 갚고자 박랑사(博浪沙)에서 역사(力士)를 시켜 철퇴(鐵槌)로 진시황을 쳤으나 실패함. 그 뒤에 하비(下邳)의 이상(圯上)에서 황석공으로부터 병서를 받고, 한고조 유방의 모신(謀臣)이 되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초나라를 평정하여 한업(漢業)을 세웠는데, 그 공으로 유후(留侯)에 봉해졌음.
66) 사마천(司馬遷) : 자는 자장(子長)이고 태사령(太史令) 사마담(司馬談)의 아들이며 전한(前漢)의 사

가(史家)임. 무제(武帝) 때 흉노에게 항복한 이릉(李陵) 일족을 변호하다가 무제의 격노를 사서 궁형을 당했음. 그 뒤 중서령(中書令)이 되었고, 부친이 끝내지 못한 수사(修史)의 업을 계승하여 태사령(太史令)으로 있을 때 궁중에 비장된 도서를 마음껏 읽었으며, 궁형을 당한 뒤에는 130편의 거작『사기史記』를 완성했음.

67) 관운장(關雲長) : 삼국시대 촉한(觸寒)의 용장으로 자는 운장(雲長)이며 용모가 괴위(魁偉)하고 특히 긴 수염으로 유명함. 장비(張飛)와 함께 유비(劉備)를 도와 공이 컸음.

68) 명촉달조(明燭達朝) : 관운장(關雲長)이 밤새도록 촛불을 밝히고 글을 읽었다는 말임.

69) 장익덕(張翼德) :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용장으로 자는 익덕(翼德)이며, 관우와 함께 유비를 도와 전공을 세웠으며, 오나라를 치고자 출병했다가 부하에게 피살되었음.

70) 편비(偏裨) : 편장(偏將) • 부장(副將) • 장좌(將佐). 대장을 돕는 한 방면의 장수.

71) 오왕손권(吳王孫權) : 삼국시대 오나라의 초대 황제. 그의 형 손책(孫策)의 뒤를 이어 강동(江東)을 영유(領有)하고 유비와 함께 조조를 적벽(赤壁)에서 대파했음.

72) 위왕조조(魏王曹操) : 후한 사람으로 자는 맹덕이고, 권모에 능했으며 헌제 때 재상이 되고, 위왕으로 봉해졌음.

73) 도주(陶朱)의돈(猗頓) : 도주(陶朱)는 월왕(越王) 구천(勾踐)의 신하 범려(范蠡)의 변명(變名). 축재(蓄財)의 재주가 있어 19년 동안 세 차례 천금(千金)의 치부를 하였음. 의돈(猗頓) 춘추시대 노국 (魯國)의 대 부호.

74) 석숭(石崇) : 진나라 남피(南皮)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75) 월서시(越西施)우미인(虞美人)과 왕소군(王昭君)양귀비(楊貴妃)는 : 월서시(越西施)는 오나라 임금 부차(夫差)의 총희(寵姬)였던 월나라 미인임. 우미인(虞美人)은 초나라 항우의 총희(寵姬)임. 왕소군(王昭君)은 전한 효원제(孝元帝)의 궁녀로 이름은 장이며, 칙명(勅命)으로 흉노의 호한사선 우에게 시집 감. 양귀비(楊貴妃)는 당나라 현종의 총희(寵姬).

76) 팔백년(八百年)팽조수(彭祖壽) : 팽조(彭祖)는 신선의 이름. 요임금의 신하로서 은나라 말년까지 팔백세를 살았다고 전해짐.

77) 동방삭(東方朔) : 전한(前漢) 때의 사람. 자는 만천(曼倩). 무제(武帝)를 섬겨 금마문시중(金馬門侍中)이 되었으며 해학(諧謔)과 변설(辯舌)에 능했음.

78) 안기생(安期生) : 진시황 때의 선인(仙人). 포박자(抱朴子).

79) 적송자(赤松子) : 신농씨(神農氏) 때의 선인(仙人).

80) 사흉(四凶) : 요임금 때 네 명의 악인(惡人)을 말하는데, 공공(共工), 환두(驩兜), 삼묘(三苗), 곤(鯤) 등임.

81) 이재가(李在稼) : 1837부터 1841년까지 거창 수령으로 재직하고 있었음. 이재가(1783~1865)는 청백리의 후예로서 광능참봉으로 봉해졌다가 안주목사를 지냈으며, 80세 되던 임술년(1862)에는 조관(朝官)으로서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에 봉해졌음.

82) 책방(冊房) : 고을 원의 비서(秘書)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관제에 있는 직책은 아니고 사사로이 임명함.

83) 취방(取房) : 재물을 수취(收取)한다는 의미에서 쓴 말.

84) 징청각(澄淸閣) :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집이라는 뜻에서 감영(監營)을 달리 부르는 말.

85) 우리순상(巡相) : 순상(巡相)은 순찰사(巡察使)의 약칭. 순찰사는 임금의 명으로 지방의 군무를 순

찰하던 임시 벼슬아치나 또 그 벼슬아치. 대부분 한 도(道)의 군무를 순찰하던 벼슬이나 그 벼슬아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개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했음.

86) 읍보(邑報) : 고을의 관부에서 올리던 보고.

87) 문불서양(問佛西洋) : 부처를 서양에 묻는다는 뜻으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한 일이라는 말.

88) 이노포(吏奴逋) : 아전(衙前)이나 관노(官奴) 등이 포탈(逋脫)한 돈이나 곡식.

89) 포흠아전(逋欠衙前) : 환곡이나 부세를 중간에서 떼어먹은 아전.

90) 두승곡(斗升穀) : 한 말이나 한 되. 즉, 보잘 것 없는 양의 곡식을 비유함.

91) 대전통편(大典通編) : 조선조 22대 정조(正祖)의 명을 받아 김치인(金致仁) 등이 편찬한 법전(法典).

92) 방채전(放債錢) : 자방관청의 예상치 못한 대사(大事)에 쓰기 위해 마련한 지칙전(支勅錢) 가운데 필요한 액수만 남겨 놓고 나머지를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던 돈.

93) 결복(結卜) : 전지(田地)의 면적 또는 전세(田稅)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됨.

94) 수쇄(收刷) : 세금을 징수하는 일. 또는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외상값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뜻하기도 함.

95) 삼개합천 : 삼개는 현재 경남 합천군 남부에 있는 면으로 소재지는 일부리(一部里). 합천은 경상남도 북서부에 있는 군. 거창과 인접해 있으며 조선시대의 합천군(陜川郡), 초계군(草溪郡), 삼가현(三嘉縣) 등 3개의 군현이 합하여 이루어진 곳.

96) 안의지예(安義知禮) : 안의는 안의현, 안음현의 조선 후기 이름이며, 지금의 경남 함양군 안의면 • 서하면 • 서상면 • 거창군 마리면 • 위천면 • 북상면 일대를 말함. 지예는 지례현. 경상북도 지례면 • 구성면 • 부향면 • 대덕면 • 증산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임.

97) 목상납(木上納) : 공부(貢賦)를 무명이나 광목으로 납부하던 일.

98) 호조혜청(戶曹惠廳) : 대동미(大同米) • 포(布) • 전(錢)의 출납을 맡아 보던 직소(職所).

99) 낙강성천(落江成川) : 낙강(落江)은 제방이 무너지거나 범람하는 것을 뜻하고, 성천(成川)은 성천복사(成川覆沙)의 약칭으로서 개천으로 되어버린 전지(田地)와 모래가 덮여버린 전지를 말함. 이럴 경우는 면결(免結)되었는데, 당시의 수령과 아전들은 수재로 하여 모래사장이 되어버린 전지에 결복함으로써 원징(寃徵)의 폐단을 만들어 냈던 것임.

100) 재(灾) : 수재(水災)나 한재(旱災) 등으로 전지(田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받게 되는 조세(租 稅) 감면의 혜택.

101) 재결(灾結) : 재앙을 입은 전지(田地).

102) 묘당회감(廟堂會減) : 조정(朝廷)에서 줄 것과 받을 것을 상쇄(相殺)하여 나머지만 내게 함.

103) 가포중(價布中) : 가포는 일정한 신역(身役)을 치러야 할 사람이 출역(出役)하지 아니하고 그 역의 대가로 바치는 각종 포목(布木).

104) 삼사년(三四年) 내려오며 : 수령 이재가의 재임기간을 말함.

105) 일향(一鄕)의 편침(編侵)하여 : 한 고을을 얽어매어 침탈하며.

106) 선무포(選武布) : 선무군관(選武軍官)에게 주던 보포(保布). 지방 향군(鄕軍) 중에서 선출된 군관을 선무군관이라 함.

107) 제번포(除番布) : 번상(番上)의 의무를 면해주는 대가로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에 치르던 포목.

108) 관차(官差) : 관아에서 보내는 아전(衙前), 군노(軍奴), 사령(使令) 등의 관리들.
109) 황구충정(黃口充丁) : 황구첨정(黃口簽丁), 즉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그 이름을 군적(軍籍)에 올려 세금을 부과하던 일.
110) 일신양역(一身良役) : 양민(良民)이 해야 할 국가에 대한 역무(役務).
111) 생민가포(生民價布) : 살아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가포.
112) 백골징포(白骨徵布) : 죽은 사람에게 징수하던 가포.
113) 황산고총(荒山古塚) : 황폐한 산 위의 오래 된 무덤들.
114) 노방강시(路傍僵屍) : 길가에서 얼어 죽은 송장들.
115) 가포탈(價布頉) : 수령과 아전들이 백성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내어 포탈하던 일.
116) 원정(冤情) : 수령과 아전들의 가렴주구에 대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일.
117) 선무포(選武布)가 당(當)한말가 : 양반들에게는 선무포의 의무가 없었음.
118) 대사(代死) :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
119) 용천검(龍泉劍) : 옛날 중국의 보검(寶劍).
120) 전배(前陪) : 벼슬아치의 행차 때나, 상관에서의 배견(拜見) 때 앞을 인도하는 관예(官隷).
121) 비답(批答) : 상소(上疏)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122) 야차나찰(夜叉羅刹) : 야차(夜叉)는 범어 yaksa의 음역(音譯)으로,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귀신으로 '두억시니'라고도 함. 나찰(羅刹)은 사람을 잡아먹는 악귀(惡鬼).
123) 우리명부(冥府)십전중(十殿中) : 명부(冥府)는 저승과 황천(黃泉). 십전(十殿)은 염라국에서 죄인들을 응징하던 열 개의 옥(獄).
124) 진지조고(秦之趙高) : 진(秦)나라의 환관(宦官)으로 옥법(獄法) • 사서(史書)에 능하고 기운이 강했음. 진시황이 죽자 승상 이사(李斯)와 짜고 조서(詔書)를 고쳐 장자 부소(扶蘇)를 죽이고 차자 호해(胡亥)를 이세(二世)로 삼아 자기가 승상이 되었음. 다시 이사를 무살(誣殺)하고 이세 마저 시살(弑殺)하고 자영(子嬰)을 옹립한 후 또다시 자영을 죽이고자 꾀하다가 자영이 앞질러 조고의 삼족을 멸했음.
125) 송진회(宋秦檜) : 남송 고종 때의 재상(宰相)이며 자는 회지(會之)임. 악비(岳飛)를 무고하여 죽이고 주전파(主戰波)를 탄압하여 금나라와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체결하였으므로, 후세에 대표 적인 간신으로 지목되었음.
126) 작년회곡(昨年會哭) : 회곡(會哭)은 회곡관문(會哭官門)의 준말로 여러 사람이 간문에 몰려가서 곡을 하는 일. 지방의 유생들이 수령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몰려가 곡을 함으로써 시정을 요구 하던 일종의 시위 행위.
127) 결항치사(結項致死) : 목을 매어 죽음.
128) 칙사행차(勅使行次) : 중국 황제의 명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사신의 행차.
129) 속(贖) : 죄를 용서받는 대가로 돈이나 물품을 바치는 것.
130) 대차담(大茶啖)과 소차담(小茶啖) : 대소 다담상. 즉, 지방 관아(官衙)에서 관찰사 등 사신을 대 접하기 위해 차려 내던 성찬(盛饌)을 이름.
131) 내아(內衙)진지 : 지방 관아의 안채(내동헌內東軒)에서 베푸는 식사.
132) 생갓짐채 : 산갓으로 만든 김치.
133) 칼자감상 : 지방 관아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맡은 하인.
134) 친기제물(親忌祭物) : 부모 기제사(忌祭사(祀))에 쓰이는 제물.

135) 큰칼팔아 큰소사고 적은칼로 송치사서 : 칼을 팔아 소를 산다는 말로 싸움을 그치고 농업에 나아감을 이름.
136) 출질(出秩) : 등급과 액수를 매김.
137) 창역조(倉役租) : 창역가(倉役價)를 뜻하는데, 전세(田稅)를 징수할 때 창고에 들여쌓는 품삯의 명목으로 덧붙여 받던 세(稅).
138) 불수계방(不受計方) : 이익을 남길 여지도 없이.
139) 결환(結還)으로 분급(分給)하니 : 논밭의 결복(結卜)에 따라 환곡을 분배하여 억지로 꾸어주던 일.
140) 황정승(黃政丞) : 세종조의 정승으로, 황희(黃喜)를 이름.
141) 입입간신(粒粒艱辛) : 나락마다 힘들여.
142) 쥘쌈지 : 옷 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쌈지.
143) 망석중 : 망석중 놀이의 주인공인 파계승을 말함.
144) 이포(吏逋)를 민징(民徵)시겨 : 아전(衙前)들이 떼어 먹은 것을 백성에게 징수함.
145) 읍외각창(邑外各倉)추보(追補)하다 : 읍 바깥에 있는 창고의 부족한 양을 추후로 보충함.
146) 환상잃고 우는백성 열의일곱 또서이라 : 모든 백성이 환상을 잃어버린다는 말.
147) 산송제사(山訟題辭) : 산송(山訟)은 묘지에 관한 소송을 말하고, 제사題辭)는 산송에 관한 판결 문을 말함.
148) 위석방분(委席放糞) :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똥을 쌈.
149) 칭탈(稱頉) : 사고가 있다고 핑계함.
150) 학궁폐단(學宮弊端) : 학궁(學宮)은 향교(鄕校)의 별칭임.
151) 신축년(辛丑年) : 헌종 7년(1841).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